

종합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석곡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미술



노민준 (일곡초 2)



김윤성 (고서초 3)



김호연 (용주초 5)



김혜원 (송정중 2)

간만화

운문



천수현 (화순이양고 2)



박소리 (풍암고 3)



김대광 (송정초 1)



박규리 (화수고 3)

산문

성악



김채운 (광주송원초 4)



조수민 (인천문일여고 3)



주창우 (광주남초 2)



이호준 (광주교대광주부설초 4)

플루트



정인성 (살레시오초 6)



박소현 (목포정명여중 3)



정의진 (광주예고 2)



채은율 (유안초 6)

트럼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정선우 (광주예고 2)



김주아 (전남예고 1)



김주영 (순천왕운초 5)



장유림 (목포부주초 2)



정소윤 (수완초 4)



나지연 (목포영산초 6)



이슬비 (목포애향중 2)



김민서 (회현중 3)

한국무용 창작

현대무용

발레 창작



권지은 (광주예고 2)



조은빛 (광주예고 3)



김노연 (광주수피아여고 2)



이아인 (동림초 4)

산문

친구

김채운 (광주송원초 4)

꼬끼오!
학교 담장 앞 세 여자 아이들이 난리법석이다.
먹이를 주려는 건지, 괴롭히려는 건지, 닭들이 쫓지를 들고 달려 다녀서 시장터가 따로 없다.
가까이 다가보니, 방금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자던 친구들……
‘왜 셋만 있는 걸까?’
따지고픈 마음을 억누르려고 그랬는지, 친한 줄 알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친구들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방방 돌아 교실로 들어갔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수업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는 순간!
이럴 수가! 내 신발장에 운동장 모래가 가득 쌓여 있었다. ‘누가 내 신발장에 모래를 집어넣었을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든 나머지 목이 메었다. 눈물을 꼭 잡고 집에 갔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얼굴 표정은 드러났는지 엄마가 물어보셨다.
“무슨 일 있니?” 흔한 엄마의 물음이지만 오늘따라 슬펐다. 그래도 “아니.”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정신없이 지나간 저녁……
침대에 누웠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사실 난 7살 때부터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2명이 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를 사이에 끼어들었다.

우리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질투괴물처럼 의심괴물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의외였다. 난 요즘 우정이라 가장 튼튼하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벽을 쌓고 있다. 가끔씩 무너지지만 잘 쌓이는 중이다. 그런데 이 우정을 깨트리는 괴물들이 있다. 질투 괴물과 의심괴물이다. 그런데 이들보다 셋이 있다. 바로 그들의 대장인 ‘이간질대왕’!
이간질대왕이 한 번 힘을 쓰면 친구와 ‘절교’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 넘어가면 끝이다.
유일한 방어방법은 그 친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을 때만 우리의 착한 보스, ‘우정은 영원히’ 보스가 방어할 수 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다. 용기를 내서 친구들과 같이 놀자고 했다.
거절하지는 않아서, 시큰둥한 표정의 친구들과 놀았다. 나도 같이 놀려고 애를 썼더니, 친구들의 얼굴이 조금씩 퍼졌다. 나도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을 것이다.
너무 많이 다가갔고, 너무 많이, 모든 것을 주었고,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에 완벽한 진심을 보여줄 수도, 더 이상 줄 수도 없지만, 그것만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가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리기, 그것만은 정말 잘 할 수 있다.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아팠기에……
나의 친구들과 우리의 미소가 계속될 것을, 아젠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질 것을 알기에, 오늘도 다시 한 번 아픔을 미고 일어나 보려고 한다.

자화상

조수민 (인천문일여고 3)

오늘도 우리 집에 낯선 이가 방문했다.
낯선 청년의 두 눈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투영 같았다.
보아하니 나이는 청춘의 끝자락에 걸터앉은 29살 같았다. 결혼문제나 취업고민으로 왔겠구나 짐작 되었다. 엄마는 안방에서 곱게 세탁한 검붉은색 한복을 입고 나왔다. 엄마는 굳은 표정의 청년 앞에 앉아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제 따뜻한 차를 두 잔 내오면 되었다. 내 주말을 타인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쓰는 게 좀 억울했다. 증명도 안 된 관상법이라니.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찾는 사람은 꽤 많았다.
“저는 왜 취업이 안 되는 걸까요?”
“딱 보니 알겠네. 눈 옆에 있는 세로줄 주름, 그리고 눈 때문이네. 찢어진 눈은 관상학적으로 타인의 호감을 받기 어렵고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지……”
엄마는 코랑 점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진지하게 관상을 봐주는 엄마도, 두 손 모아 이야기를 듣는 청년도 웃었다. 아무 노력 없이 성형으로 관상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현재와 미래가 변화될까. 여러 가지 관상 이야기를 듣다보면 의문만 남았다.
오늘은 엄마와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인 시간을 보냈다.
내일이 미술대학 실기 당일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매년 달라지는 실기 주제에 대비해 그리고 또 그렸다.
실기 대회 당일, 큰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큰 체육관에 발 디딜 틈도 없

이 작은 꿈들이 모여 실기를 준비했다. 주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화상이었다. 평소 자화상을 크로키로 그리는 걸 좋아했기에 크게 당황하진 않았다. 빠르게 스케치를 하고 작은 소망들을 담아 채색했다. 여태까지 그렸던 자화상 중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들었다. 실기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달랐던 것이었겠지.” 난 애써 스스로를 부동케언했다.
컴퓨터 모니터 속엔 빨간 글씨가 내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었다. 떨리는 손 때문에 5번 만에 모니터를 끌 수 있었다. 모니터 속에는 병져있는 내가 보였다. 순간 관상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예 너머로 배운 관상법을 떠올려 보았다. 나의 큰 문제는 점과 입술 같았다. 점이 코 옆의 오서방 점이 아닌 눈 옆의 매력점이었으면, 입술이 서양인처럼 두꺼웠으면 내 복이 더 컸지 않았을까. 그간 그려왔던 자화상을 모두 찢었다. 새로운 내 모습을 새롭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을 나가 엄마에게 내 관상부터 지금의 생각까지 모든 걸 통보했다. 난 내 관상을, 나를, 세상에 맞게 고칠 생각이었다. 그러자 엄마는 갑작스럽게 날 꺼안았다.
“관상과 자화상은 그렇게 아니야. 자화상은 그냥 얼굴만의 의미가 아닌, 성찰이야. 관상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일부이고. 얼굴을 고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닌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거지. 너 오늘 자화상을 읊미 했고 웃었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면 돼.”
엄마의 눈 속엔 내가, 나의 눈 속엔 엄마가 일렁였다. 나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운문

해

김대광 (송정초 1)

해님이 방긋방긋 하는 날엔
꼭 돈 벌러 가시는
힘센 우리 아빠
커다란 포클레인
운전하시는
힘센 우리 아빠
해님이 쟁쟁한 날엔
나랑 놀아주지 못해요.
나는 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우르르 펑팡 하는 날이
정말 정말 좋아요.
비가 주룩주룩하는 날엔
엄마랑 아빠랑 함께
놀 수 있어 좋아요.
해야 해야
힘센 우리 아빠
될 수 있게
나랑 놀 수 있게
너도 쉬었으면
좋겠어.

담장

박규리 (화수고 3)

본 경계를 넘지 마시오
어느 날 이웃 아파트와 연결된 샅길에
담장이 세워지고 플래카드가 걸렸다
엄마, 길이 사라졌어요
무거운 가방 메고 임대아파트로
돌아돌아 온 막내에게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담이 생긴 거란다
엄마는 녹색 한숨을 푹 내쉬다
미술을 전공하는 막내는
토요일 오후에 화구를 들고 나가
새로 생긴 담장 회벽에
커다란 문 하나를 그렸다
며칠 후 비가 내리고
새 한 마리 씨앗을 물고 날아오더니
담장 주변에 강낭콩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초록 강낭콩 줄기가 담을 타넘으며
경계와 경계를 넘어 무성하게 길을 만들 무렵
관리인들이 나타나 줄기를 죄다 베어 버렸다
엄마, 길이 또 사라졌어요
칭얼대는 막내의 등을 두드리며
엄마가 대답했다
길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담장이 생긴 거란다



‘최고상 작품 발표회·시상식’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전국예술종합대전 ‘호남예술제’ 올해 행사는 전국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제64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열린다.
1부는 발레창작부문 이아인(동림초 4년) 등 3명의 춤사위가, 2부에선 피아노 장유림(목포부주초 2년) 등 14팀의 연주가 펼쳐진다. 3부는 각 부문 최고상 시상식이 진행되며, 로비에선 미술, 사·산문 최고상 작품이 전시된다. 문의 062-220-0541.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